

## 말씀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전국의 도로가 수 많은 차량으로 막히지만, 그래도 고향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고향을 무릅쓰고 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더 좋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바로 더 좋은 고향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천국이 우리의 행선지이며,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천국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또한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므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는 반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삶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재능 등을 최선을 다해 선용해야 합니다. 천국에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길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계 21:21) 금괴를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영혼의 고향인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 설 가정예배 순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지역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하는  
공주중앙장로교회

#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 신앙고백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 송 ..... 찬송가 28장 ..... 다 같이

## 기 도 ..... 말 은 이

## 성경봉독 ..... 히브리서 11:13-16 ..... 다 같이

## 말 씬 ..... 더 좋은 본향 ..... 말 은 이

## 찬 송 ..... 찬송가 491장 ..... 다 같이

##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성경본문 “히브리서 11:13-16”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시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롭과 죄가 있는곳 나 비록 여기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길을 싸우며 나아갑시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주여 인도하소서  
5. 내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